

섬김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정말 업혀도 돼요?
 난 혼자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함
 업혀보면 안 될까?

혼자 가면 내 책임이지만,
 업히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새끼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가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믿음은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September 5,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5번 - 시편 8편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장영현 전도사 찬 송 / 10장 - 전능왕 오셔서 / 4절 (통일찬송 34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양 /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 송 /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통일찬송 344장) 봉 헌 / 홍정임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양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성경말씀 / 요나 1:3-6 의도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3:7-9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웃과 교회를 섬기십시오.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성장과 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기도 모임 9월 한달 점심친교 후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하십시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시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방역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 믿음의 뿌리 내리기 2021년 남은 기간
1) 기도 운동 2) 전심으로 예배하기 3) 성경 말씀 묵상하기
- 노동절 수련회 일정: 9/5(주일) 5:00pm - 9/6(월) 12:00pm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 교회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토론 / 안식과 교제

9월의 사역 - 노동절 수련회(9/5-6) 성장과 성숙 주간(5-11) 선교 주간(19-25)
선교 주일(26)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9/5, 12, 19, 26)

♥9월 생명의 사랑♥ 이정운(30)

기도 제 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8/29	9/5	9/12	9/19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8/29	9/5	9/12	9/19
	최내권집사/홍정임집사		구 민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이 가라사대.../그대로 되어.../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세기 1:1-12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시작이다. 따라서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의 시작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진정한 순종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자.

요나의 의도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 요나 1:3-6

요나의 의도적인 불순종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돌아오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 풍랑, 사람들

현실을 믿음과 신앙으로 직면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범사에 순종으로 화답해야 한다.

요나의 의도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 요나 1:3-6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끄셨다. 그러니 믿음을 행함, 즉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는 육로를 가야하는데, 요나는 배를 타려 이방인의 항구 '욥바'로 향했다. 욥바에서 요나는 스페인의 서남 도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탔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가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난 것이다. 배에 올라탄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래에 숨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됨에 안도했거나 심한 갈등으로 심신이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의 자화상이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는데 기도, 말씀묵상, 사역, 전도 등을 이런 저런 핑계로 하지 않는다. 묻는다. "왜 꼭 제가?" "꼭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우길 때도 있다. 우리 마음에 들 때만, 바로 순종한다. 이런 의도적인 불순종은 모두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요나를 보라.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 살 길을 찾는 선장은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일갈한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우리를...망하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즉,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는 요나는 이방인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런데, 이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나 심판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다른 선지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역을 요나에게 맡기셨다.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을 치는 동역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돌아오도록 폭풍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인생의 풍랑이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자.

자주 넘어지고 사명을 잊고 어긋난 길로 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어제의 기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 받은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는가? 죄는 유혹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때문에 짓는다.
죄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죄를 정당화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다가오는 유혹에 매번 이길 수 없다.

유혹은 매번 더 강해진다. 오늘의 유혹은 어제보다 강하다.
보디발의 아내도 더욱 강한 유혹으로 요셉에게 다가갔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 창 39:10

여기서 키워드는 ‘날마다’이다. 대단한 권력을 지닌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강하게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뿌리치기 쉬운 유혹을 견디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다는 것은, 매일의 유혹보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이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최악의 유혹이 아주 강하게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절대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의 함께하심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의 유혹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어제 이겼다고 오늘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제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고 오늘 괜찮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어제의 기억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된다.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우리 삶에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폭풍 속을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낙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약한가요?
왜 남들처럼 평탄하지 않나요?'
하면서 울다가,
한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이란다.

믿음 있는 척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 갑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돌보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 삶에 폭풍의 시간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때 더 가까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 이무현 / 깃머플만화_그림책마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였으니 여호와께 나의 명철을 의지하여 말라.”

시편 145:1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